

'바로크의 즉흥성과 판타지의 자유로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내일 광주·9일 서울 연주

글해졌다"고 웃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콩쿠르와 함께 한 시절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연주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마음이다.

김다미는 지난해 여름 세계 최고 클래식 축제인 투체르페스티벌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성료하는 등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연주자로서 젊은 나이에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경지다.

"연주자도 스포츠 선수처럼 나이를 먹으면 손가락 근육 한계 등으로 인해 기술적인 부분은 점차 떨어진다. 과거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들고, 파릇파릇하게 치고 올라오는 젊은 연주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올린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행복감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평소 요리하는 동영상, 메이크업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많이 본다. (클래식음악계 외)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연주도 중요하지만 내 삶 자체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다."

학업에도 열심이다.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미하일라 마틴을 사사하고 있는 그녀는 가을부터 뉴욕주립대 박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다. "음악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음악 역사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더라. 본능이나 감각으로만 연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최근 느꼈다. 길게 연주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역사 등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마다 성숙해지는 김다미의 연주력은

리사이틀 '바로크 & 판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 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그녀가 국내에서 처음 자신만의 이름을 내걸고 정식으로 펼치는 리사이틀이다. 3년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여는 단독 리사이틀이지만, 그 전까지 김다미 앞에 주최 측의 타이틀이 함께 따랐다.

이질적인 장르로 알려진 고전 이전의 바로크와 낭만의 판타지 프로그램을 나란히 배치하며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바로크의 오블리가토(즉흥성)를 모티브로 판타지의 자유로움을 선사한다. 첫인상은 엄격함을 고수하는 고전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이나 알고 보면 따뜻함과 낭만으로 가득한 김다미를 실제 만나는 순간이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소나타 라장조 작품 10, 비탈리의 사르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사단조 '악마의 트릴'이 1부 바로크를 구성한다. 국내에서 듣기 힘든 '악마의 트릴'은 바로크와 판타지의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한다. 슈만의 환상소곡집 작품 73,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 사단조 작품 140, 사라사테의 카르멘 판타지 작품 25로 이어지는 2부 판타지 속으로 풍덩 빠져볼 수 있는 이유다.

6월3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9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솔리스트이자 '트리오 제이드'의 피아니스트인 이호주가 호흡을 맞춘다. 3~4만 원. MOC프로덕션. 02-338-3816 /이성주 기자



국내 최초 한의학 동화 인니어 중국어로 수출

한의학자들이 직접 쓴 국내 최초 한의학 어린이 동화책이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국으로도 수출된다. 국내 출판 2개월 만이다.

1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도서출판 리젼은 중국 장시(江西)고교출판(Jiangxi University and Colleges Press)과 총 5만부 수출판권계약을 체결했다.

리젼이 앞서 지난달에도 인도네시아 그라메디아 출판사(PT Gramedia Pustaka Utama)와 수출 판권계약 체결에 이어 두 번째다. 양측은 판매 완료 후에도 추가로 책자를 공급기로 협의했다.

한편 '인니어하세요! 명동 선생님'은 지난 3월 한의학자들이 '어린이건강동화제작위원회'를 만들어 출간한 총 10권의 어린이 건강 동화책이다.

한의학 명동 선생님들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성장·발달, 알레르기 비염, 상처, 감기, 복통, 아토피, 비만, 아노증, 음극치, 관절 외상 등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치료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주 기자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29·사진)의 20대는 누구보다 치열했다. 2009년 콩쿠르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그녀는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1위 없는 2위(2010), 독일 하노버 국제콩쿠르 우승(2012) 등 출전한 콩쿠르 7곳에서 모두 입상하는 등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최근 예술의전당에서 만난 김다미는 "예전보다 여유가 더 생겼다"고 방긋 웃었다. "어렸을 때는 내일 당장 연주가 있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 남들에게 내 연주

를 보여줄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망도 있었다."

콩쿠르에 매달리다 보니 자신의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한 듯했다. "완벽한 연주를 보여줘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극에 달하니, 날카롭고 신경질적이 됐다. 그런 성격이 음악에 반영되더라."

김다미의 지금 모습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녀는 클래식 음악계에 입성과 사람 좋기로 유명하다. "그런 콩쿠르 생활을 멈춘 뒤 성격과 소리가 풍물풍

국립발레단, 4일 정음서 공연



국립발레단이 오는 4일 정음에서 공연을 갖는다.

시에 따르면 한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2016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선정된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이하 돈키호테)' 공연이 당일 오후 2시 정음 사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작품인 돈키호테는 국립발레단이 발레 대중화를 위해 기획한 작품들 중 하나다. 공연에 등장하는 인물인 가미샤가 직접 전체적인 줄거리를 들려줌으로써 내용의 이해를 높이며, 극의 사실성과 재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발레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김생기 시장은 "늑음이 짙어가는 좋은 계절에 시민들께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무료이고, 특히 시는 190여명의 지역 소외계층을 초청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람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오후 1시부터 1인 2매씩 배부될 예정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명인 오마주' 상설공연

매주 토요일 열쑤마루 대공연장서 故 이창배·박동진·채계만 등



故 이창배 명인.

국립무형유산원은 시대의 명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회고하는 무대로 '명인 오마주' 공연을 마련한다.

공연은 6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4시 열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故 이창배(4일), 박동진(11일), 채계만(18일), 김성진(25일) 명인을 기리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창배(1916~1983, 선소리산타령의 예능 보유자)명인의 노래에는 동양의 고전으로부터 서울의 민담에 이르기까지 평생 학문과 예술에 정진했던 그의 발자취가 스며있다.

그는 <한국음악가창대계>를 저술해 한국 음악의 기록 보존 및 사설(가사)을 정리하는데도 일조했다.

이 공연은 3일까지 선착순 250명을 모집한다.

박동진(1916~2003,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은 흥보가로 시작해서 다섯 마당

을 모두 완창해 '판소리 완창의 선구자'로 불리며 판소리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했다.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판소리는 '흥보가'지만 그가 평생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판소리는 '적벽가'로 그의 소리엔 희로애라의 정조가 깊이 있게 배어있다.

채계만(1916~2002, 진도씻김굿 예능 보유자)은 씻김굿의 음악적인 지평을 넓혀왔다. 그는 그간 굿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

았던 아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도씻김굿을 더욱더 입체적이면서도 화려하게 만들었다.

김성진(1916~1996, 대금정악 예능 보유자)은 실내악 형태인 정악에서 대금이란 악기를 독립해서 광복 이후 대금정악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도록 기틀을 확립했다.

공연과 관련해 윤중강 연출가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제자들의 삶과 예술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평생 자신의 예술적 기예를 갖고 닦았던 명인의 어린 시절부터 생전 삶의 에피소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재능과 가르침을 유언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우리와 오늘의 전통을 살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280-1500.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 7일까지 도 문화예술과서 접수

전라북도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 하반기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비는 총 9억 4천만원으로, 상반기 사업에 1억원을 선정했으며 하반기 사업에는 8억4천만원(심의평가비 1천만원 제외)의 예산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사업신청은 오는 7일 18시까지 전북도청 문화예술과에 방문접수 해야 한다.

대상은 회원이 100명 이상이고 전라북도에 소재한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서 5년 이상 활동한 단체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이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차 전문가 심의를 거쳐, 2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예심과 본심)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12월에 행사를 기획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그동안 행정적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했으며, 본 사업의 실시로 도내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 280-4846.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2일>

<p>▷쥐띠 46년생: 왕성하게 활동하라. 60년생: 이성으로 인해 구설이 따르니 주의하라. 7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바수가 따르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p>	<p>▷소띠 49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다. 61년생: 내실을 다지며 때를 기다려라. 73년생: 지금의 고생은 후에 결실로 다가올 것이다 쉬지 말고 노력하라. 85년생: 동기간과 함께하면 힘든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p>	<p>▷호랑이띠 50년생: 남성은 여성의 조언을 구하라. 62년생: 타인의 이목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74년생: 중요한 물건은 소지하고 다니지 마라. 8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면 사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 공과 사를 구별하라.</p>	<p>▷토끼띠 51년생: 마음을 다스려라. 63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운. 75년생: 처리하는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막히게 되니 대비하면서 진행하라. 87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니 주위를 살펴보고 경계하라. 64년생: 적당히 거리를 두어라. 76년생: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88년생: 이성이 줄어들어는 운이다.</p>	<p>▷뱀띠 53년생: 배움만 덕이 쌓이니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77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89년생: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 66년생: 어려움에 처하면 뒷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겸이하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처음에는 서로 뜻이 맞지않고 기분상할 일이 생기나 후반에는 풀리게 된다.</p>	<p>▷양띠 55년생: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문서에 결성이 비추니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79년생: 건강에 대해 신경써라. 9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p>
<p>▷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말아라. 68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겸손은 필수다. 92년생: 손이래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p>	<p>▷닭띠 57년생: 매사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겠다. 69년생: 작은 성과를 얻으려는 자세는 좋은 운. 81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93년생: 후회 할 만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p>	<p>▷개띠 46년생: 손윗사람에게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 58년생: 금전운이 상승되는 운이다. 70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보라. 82년생: 작은 소망은 이를 수 있는 운이다.</p>	<p>▷돼지띠 47년생: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59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쓰고 섭생에 주의하라. 71년생: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라. 83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p>